

단식 19일째 이재명 대표 병원 이송...검찰은 영장 청구

민주,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내각 총사퇴 촉구 반발 파국 치닫는 정국...국회 21일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주목

국정 쇄신과 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며 19일 동안 단식을 이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 악화로 18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정치권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오는 21일 이뤄질 전망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국회 당 대표실에서 단식을 계속하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이 부른 앰블런스에 실려 7시 10분경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국정 쇄신과 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19일째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혈당이 급속히 떨어지며 거의 의식을 잃은 상황이었다고 한다.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탈수 등 증상을 보여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병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생리식염수 투여 등 응급조치를 받았다.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식으로 신체 기능이 상당히 저하됐다는 게 의료진 소견"이라고 밝혔다. 단식을 계속 이어갈 의지가 있느냐는 물음에 권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응급조치를 받은 이 대표는 오전 9시 35분경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동했다. 이 대표는 이곳에서 회복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달 31일부터 국회 앞 분청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에 들어갔던 이 대표는 이날 13일 분청 내 당 대표실로 단식 현장을 옮긴 뒤부터 건강이 빠른 속도로 좋아졌다. 당내 인사들은 물론 시민사회 원로 등이 잇달아 찾아 단식을 만류했으나, 이 대표는 곡기를 끊은 채 단식을 지속해 왔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결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단식 중단은 물론 입원도 완강히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날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은 단식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시길"이라며 "수사 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송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 건의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이 총체적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총리가 장관을 제대로 추천하지 못한 잘못도 있고 (국정을) 총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는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임 건의안은 오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고 나면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사 독재정권의 폭거이자 파멸적이고 잔인한 영장 청구"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병기 수석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잠으로 비정하다. 치솟는 분노를 참기 어렵다"며 "영원할 것 같은 권력에 취해있지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느냐"며 "이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특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 병원 이송 소식을 영장 청구 소식으로 덮으려는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단식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건강이 악화돼 국회에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은 "윤 대통령 국정 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하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더불어민주당 박광은 원내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면 지금의 국정 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금 바뀌지 않으면, 이번 임기 5년은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이미 법치·상식·보편적 가치의 위험선 등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국무총리 해임을 포함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총리 해임안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라. 그것이 영권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행보도 비난했다. 그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며 "이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법이든 정치는 지나침은 화를 부른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하면서 "전임 정부의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이어가고 더 발전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 정권이 밟고 해서 전직 청와대 참모와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구속하는 일은 사사롭다. 한풀이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을 겨냥해서는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있다.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 감사를 당장 중단하라"며 "이는 마지막 경고"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이 확정됐다 특별사면돼 재차 서울 강서구정장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 "사실상 대통령의 '사친'"이라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백현동 배임·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혐의

검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내용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음에도 형사절차는 별개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단식 상황과 관련해서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해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정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조래되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 전 실장과 이 대표가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용역별치 승인 등의 특혜가 제공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 결과 사업을 독차지한 정 회장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김 전 대표는 로비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사는 사업 참여로 받을 수 있었던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과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 제재로 못하게 되자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등을 요구하는 김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옥상스틸방수